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



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에서 성가대가 찬양하고 있다.

“개혁신앙으로 사회 변화시키자”

PCUSA 남가주하와이 KPC 종교개혁 기념 세미나 개최

PCUSA(미국장로교) 남가주하와이 KPC(회장 원영호 목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기념 세미나를 지난 21일 오후 2시에 토렌스제일장로교회(고창현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셉 스몰 박사(전 PCUSA 신학 및 예배 디렉터)와 김창환 박사(풀러신학교 코리안센터 원장)가 주강사로 참석했다. 오후 2시 부회장 문일명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세미나에서 스몰 박사는 “The Great Purposes and Uncertain Future of the Church”라는 주제로 PCUSA의 전통적인 교리와 신앙관, 그리고 기독교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서 제리 앤드류스 목사(샌디에고제일장로교회 담임)가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The Fellowship Community(TFC)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TFC에 대해 “변해가는 사회와 교회 속에서 복음주의 신앙을 지키며, 교회에 맡겨진 사명인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교회와 교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협력하는 모임”이라고 말하며 한인들의 가입과 동참을 부탁했다.

이어 고창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저녁 예배에는 토렌스제일장로교회 카리스찬양팀의 찬양 인도에 이

어서 최형호 장로가 기도했다. 김창환 박사는 “개혁신앙 중심의 공적 교회”(행10:1-8, 47-48)란 제목으로 설교했고 주성영 목사의 특별기도 인도, 천방욱 목사의 축도로 진행되었다.

회장 원영호 목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개혁신앙을 재조명하면서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영향을 끼치는 개혁신앙으로 되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행사를 주최한 남가주하와이 KPC는 남가주와 하와이에 있는 PCUSA 한인교회들의 협의체이며 37개 회원 교회가 활동 중이다.

세계아가페 창립 40주년 맞이해

김요한 원로목사 추대 및 전용복 담임목사 취임

세계아가페선교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해 기념감사예배를 지난 24일 오후 4시에 드렸다.

감사예배는 김요한 목사의 사회로 시작돼 라명철 목사(다우니아가페교회)가 기도하고 최규 장로가 지난 40년 교회 연혁을 소개했다. 이어 이 교회가 속한 국제오순절성결교단의 총회장인 A. D. 비첩 목사가 “소망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설교 통역은 세계아가페선교교회 영어목회자인 유디모데 목사가 했다.

곧 이어 김요한 목사의 원로목사 추대식이 시작됐다. 윤창희 목사(달라스사랑선교교회)가 사회를 맡았고 전제이슨 목사가 예식사를 전했다. 이상문 목사(한국지방회 총무)가 사역보고를 전한 후 김요한 목사의 사역을 회고하는 동영상이 상영됐다. 이어 장기평 장로가 원로추대를 선포했고 골든웨스트지방회의 톰 머레이 목사와 안인권 목사(메릴랜드 새소망교회)가 축사를 전했다. 교단과 지방회, 아가페선교회가 김요한 목사 부부에게 화환 및 감사패를 전하는 시간도 있었다. 이어 남가주목사중앙단이 축가를 부르고 김요한 목사가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목사는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 부름 받은 사명자에게 죽을 때까지 은퇴란 없다”고 말하고 성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했다.

그 후에는 전용복 담임목사가 취임했다. 이상문 목사가 전 목사를 소개하고 전 목사와 교인들로부터 각각 서약을 받았다. 비첩 목사와 안인권 목사가 전 목사에게 권면의 메시지를 전했다며 역시 지방회와 아가페선교회가 화환을 전달했다. 소병헌 목사(국제아가페선교교회)가 축가를 부른 후 전 목사가 담임으로 취임함을 감사하며 취임 인사를 전했다. 전 목사는 “7년동안 세계아가페선교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국,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했다. 앞으로 중보기도, 성령운동,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길 원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전 세계를 교구삼아 선교, 영혼 구원 사역에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인사 및 광고는 최광태 장로가 했으며 다 함께 “우리는 사랑의 피로 하나가”를 부른 후 석세기 목사(엘파소가가페선교교회)가 축도함으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김한요 목사 <예수님의 러브레터> 출판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책, 읽기 어려운 책으로 대변되는 요한계시록을 ‘러브레터(Love Letter)’라고 부르는 강해서가 최근 출판됐다. 베델한인교회 김한요 담임목사가 2013년부터 총 23회에 걸쳐

전한 요한계시록 강해를 묶어 펴낸 책 <예수님의 러브레터>다. 이 책은 은혜샘물교회 박은조 목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웨신)의 정인찬 총장, 세계적인 신학자 정성욱 교수, 배우 차인표·신애

라 부부, 김희석 교수(총신대), 정승원교수(총신대), 김선일 교수(웨신대), 주선태 교수(경상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기독교계 리더들이 추천의 글을 쓸 정도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3면에 계속)

“예수영광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ASE CERTIFIED LA Auto Tech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Olympic Blvd.
 Pico Blvd.
 Santa Monica Ave.
 Oxford Ave.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10K Service
- A/C Service

*월~금 : 8AM~6PM, 토 8AM~4PM *320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323)735-3180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웍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Practicing Excellence with Winning Strategy

JEONG & LIKENS는 상법, 민사, 지적재산권, 노동법, 부동산, 건설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상법/민사

- 물품/서비스 거래 계약 위반
- 채권/채무/파산 관련 소송
-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 비즈니스 파트너 간 소송
- Non-profit 협회 관련 소송
- 장애자법(ADA) 관련 소송
- 비즈니스 관련 보험사 상대 소송

지적재산권

- 디자인 등 저작권 등록
- 의류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
- 영화, 음악, 방송 관련 저작권 소송
- 상표권 등록 관련 소송
- 상표권 침해 관련 소송

노동법

- 고용계약서/직원핸드북 작성
- 오버타임 등 노동법 관련 소송
- 차별, 보복 행위 관련 소송
- 부당해고 관련 소송

부동산/건설

- 부동산 매매/에스크로 관련 분쟁
- 비즈니스 매매 관련 소송
- 커머셜 리스 관련 분쟁
- 은행과 커머셜론 관련 분쟁
- 건설 관련 분쟁
- Mechanics lien/stop notice 관련 소송

- 다수의 대형 로펌 상대 소송 승소
- 미주류 대형기업을 상대로한 다수의 승소 경험
 - 1) 미국 소프트웨어 대기업이 제기한 지적재산권 소송 **성공적 방어**
 - 2) 대형 언론사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성공적 방어**
 - 3) 미 대형 군수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승소**
 - 4) 대형 부동산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승소**
 - 5) 전문 변호사들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건설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 6) 10년이 지난 전문가 업무상 과실 사건, 공소시효문제 해결하여 **승소**
- 수입 거부된 소송, 전문 변호사들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불리한 소송 **이례적 승소로 해결**
- 지적 재산권, 부동산, 채권추심, 건설, 노동법 등 관련 다수의 상법 소송 승소
- 중소기업중앙회, 한인외국협회, 한인부동산협회 및 다수의 기업에 고문변호사로 활동

정찬용

Loyola Law School, J.D.
 Senior Articles Editor,
 Loyola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Review
 Published an article on Antitrust Law, Loyola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Review
 Won 2006 Annual Writing Competitio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Law & Management





취임감사예배를 마친 후 지방회에 소속된 교직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예성 미국서남지방회장 오병익 목사 취임

교회 개척, 해외 선교, 연합 사역, 신학교 사역에 집중

미주예성(예수교미주성결교회) 미국서남지방회는 지난 9월 24일 주일 오후 5시 30분 남가주벤엘교회(담임 오병익 목사)에서 오병익 지방회장 취임감사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

이날 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되었으며, 1부는 예배, 2부는 취임식, 3부는 만찬과 친교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이날 예배에서는 강양규 목사(남가주세안약교회)의 사회와 양홍규 목사의 기도, 김규진 장로의 성경봉독, 남가주벤엘교회 성가대의 찬양, 그리고 박용덕 목사(남가주빛내리교회)의 설교가 있었다.

말씀을 전한 박 목사는 시편 36

편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해서”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우리 미국서남지방회와 모든 성도, 그리고 새롭게 선출된 임원들 위에 충만하길 원한다”고 했다.

이어서 제2부 취임식에서는 취임자를 위한 기도 순서에서 신임 지방회장을 위해 지방회 모든 임원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임인에 목사의 취임자 소개와 오병익 목사의 취임선서, 취임패 증정, 취임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제임스 목사(올리브라이프교회)가 축사하고 김현지 집사(소프

라노)가 축사를 부른 후, 박용덕 목사가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가 끝났다.

한편, 미국서남지방회는 지난 2016년 10월 25일 열린 제14차 예수교미주성결교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 전략적으로 미국 서부 지역에도 한 개의 지방회를 신설하기로 결정에 따라 설립됐다. 미국서남지방회는 총 10개의 교회와 1000여 명의 성도, 그리고 40여 명의 교직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방회는 향후 4대 핵심사역으로 교회 개척과 해외 선교, 연합 사역과 신학교 사역을 꼽으며 이에 집중하고 성경의 복음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미주크리스천신학대 가을학기 개강



가을학기 개강예배를 드린 후 기념촬영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 2017년 가을학기가 9월 21일 오전 11시 재학생 및 신입입생 16명, 교수들, 그리고 축하객 등 모두 43명이 모여 개강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됐다.

신학대학장 송인 박사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고 윤건상 목사의 대표기도에 이어 최경일 목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봉독하고 윤에스더 목사가 특송했다.

대학원장 민준기 박사가 “무엇을 배울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남가주교협 부회장인 심진구 목사가 헌금 기도, 재학생들이 헌금 특송, 남가주목사회 회장인 김영구 목사와 권다니엘 UBU 총장이 축사했다.

이어 원로작곡가 전재학 목사가 특송, 총장인 엘리아 김 박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김 박사는 “오늘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다. 이제 9학기째 맞이하는 학교이지만 미주 지역의 명문 사립신학교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가장 훌륭한 교수들을 모시고 강의에 임한다”고 전했다.

광고에 이어 찬송가 ‘부름 받아 나선 이 꿈’ 찬송 후 남가주목사회 증경회장인 정중윤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OC목사회 수석부회장인 남상국 목사의 식사기도로 친교를 했다.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가 '사랑의 찬양제'로 이웃 돕기에 앞장 섰다.

남가주장로협 사랑의 찬양제 개최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회장 한철수 장로)가 24일 오후 5시 30분 인랜드교회에서 제11회 사랑의 찬양제를 개최했다.

탈북민과 불우이웃, 선교지를 돕고자 기금 마련을 위해 개최한 이번 찬양제에는 남가주장로성가단 중창팀, 이화여자대학교 남가주 동문 합창단, 인랜드교회 연합성가대, 나성성결교회 성가대, 미주여성코랄, 오렌지미션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클로리아 찬양대, 목사장로부부합창단, 충현선교교회, 남가주장로성가단 등이 출연했다. 마지막 곡은 모든 출연진들의 ‘할렐루야’ 연합 찬양

으로 마무리 됐다.

이 행사를 시작하며 드린 예배에서는 김용식 장로(수석부회장)의 사회로 한철수 장로(회장)가 인사하고 이장건 장로(직전회장)가 대표기도했다. 인랜드교회 박신철 담임목사가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행 16:23-26)”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고 박남수 장로(부회장)가 헌금기도, 김광배 장로(회계)가 헌금인도, 아리조나 산성교회 어린이 찬양팀이 특송을 했다. 찬양제 사회는 김영균 장로(부회장)가 맡았고 모든 행사의 마지막인 축도는 나성성결교회 구영모 담임목사가 했다.



사우스베이 지역 한인교회들이 연합해 찬양제를 개최했다.

제7회 사우스베이 교회연합 찬양제

지난 24일 오후 5시 30분 사우스베이 교회연합 찬양제가 남가주 살롬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찬양제는 지역 한인교회들의 연합 행사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사우스베이목사회가 7년째 열고 있는 이 행사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분열과 상처를 극복하고 연합과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다.

회장 윤목 목사는 “이 행사는 경

쟁이 아닌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우스베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가장 높이 받으시는 시간”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이 모든 시간을 채우면서 오직 한 가지의 주제만 떠올랐다.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라 말했다.

이번 찬양제에는 총 9개 팀이 출연했다.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TRINITY UNIVERSITY

2018년 **트리니티대학교 학위과정 입학 안내**

디플로마 과정 : 온라인 E-lear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리스천 태솔 Christian TESOL ▪ 크리스천 통번역 Christian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학사 과정 : 온라인,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학사 Bachelor of Theology(B. Th.) ▪ 기독교교육학사 Bachelor of Christian Education(B. C. E.)
석사 과정 : 온라인,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회학석사 Master of Divinity(M. Div.) ▪ 기독교교육석사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M. C. E.) ▪ 기독교상담학석사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M. C. C.)
박사 과정 : 온라인과 집중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회학박사 Doctor of Ministry(D. Min) ▪ 문화교류학 신학박사 Doctor of Theology in Intercultural Studies (Th. D. in Ics)

학생 혜택

- * 학 석사과정 해당 학위 소지자 편입에 많은 혜택을 받는다.
- * 학교간 협약으로 영국 주요 국립 대학교에 편입할 수 있다. (University of Birmingham, Anglia Ruskin University, University of Northampton, University of Bedfordshire 외 다수 대학교로 편입 가능함)
- * 박사과정 : 집중수업도 하며, 문화교류학 신학박사에 편입하는 타학교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 * 학위 취득후 전도사 목사 해당 선교사역자로 활동할 수 있다.
- * 장학금 혜택 : 전교생이 금년 등록금의 경우 80%이상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 * 교수진 : 학력과 경력과 영력이 갖춰진 박사 교수진이 가르칩니다.

원서 접수 : 2017년 10월 20일 (장학생은 선착순)

수업 시간 : 월, 화, 목 저녁 7-10시

입학상담 : 행정 학감 Dr. Grace E. Jeong
Tel : 1(213)219-0649, (213)268-9367 E-Mail : admin@utrinity.org
주소 : 2975 Wilshire Blvd., Suite 640-D., Los Angeles, CA 90010

<http://utrinity.org> 세계 모든 곳에서 온라인 E-Learning 수업 가능합니다.
*본교는 콩코디아국제대학교 재단 선교학교입니다.

TRINITY UNIVERSITY

총 장 김희창 박사



이사장 이취임예배를 마친 후 주요 식순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기독일보 제2대 이사장 임덕순 장로 취임

기독일보 제2대 이사장에 임덕순 장로가 취임했다. 2017년 9월 24일(주일) 오후 4시 30분에 감사한인교회에서 드린 이취임예배에서 제1대 이사장 오병익 목사(남가주벨리교회)가 이임하고 제2대 이사장 임덕순 장로가 취임했다.

이날 예배는 강일하 목사(미주 CGNTV 본부장)의 인도로 시작돼 임재선 장로(OC장로협의회 회장)가 성경 디모데전서 1:12-14을 봉독하고 문일명 목사(샌퍼난도벨리교회협의회 회장)가 대표기도를 했다. 감사한인교회 성가대가 특별 찬양을 부르고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가 “직분을 맡겨 주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취임식에서는 1대 이사장 오병익 목사가 이임하고 2대 이사장

임덕순 장로가 취임했다. 오 목사는 “기독일보 1대 이사장으로 지난 1년간 섬긴 것을 감사하고 이제 훌륭한 2대 이사장을 맞이하며 이임하게 된 것을 감사한다”고 전했다. 임 장로는 “진리가 왜곡되고 정의가 혼돈되며 화해와 용서, 감사가 사라져 가는 이 세대에 올바른 가치관을 제시하고 진리와 정의를 선포하며 용서와 화해를 추구하며 복음만을 제시하는 신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영선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가 축사를 전했고 한국에서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목사)와 조정민 목사(베이직교회)가 동영상 축사를 보내왔다. 류종길 목사(미성대학교 총장), 최규남 목사(그레이스미션대학교 총장), 강신

권 목사(세계성경장로교회)가 격려사를 전했다.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의 영상 축사 후에 또 이호우 목사(OC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가 축사를 전했다. 봉헌송은 권영대 목사(미주복음방송 진행자)가 불렀으며 봉헌기도는 정우성 목사(편집고문)가 했다. 이어 OC기독교교회협의회가 산하 430여 교회를 대표해 회장 명의로 임덕순 이사장과 이인규 사장에게 취임 축하패와 감사패를 각각 전달하고 이인규 사장이 광고를 전했다.

끝으로 기독일보의 사역을 위한 합심기도 시간이 있었고 최성균 목사(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가 축도했다. 예배 후에는 이병희 목사(LA카운티 교도소 체플린)가 축하말찬을 위해 기도했다.

계시록 읽으며 승리하는 성도 되길

수익금은 ‘작은 도서관’에 전액 기부

〈1면에 이어〉 기독교 신자라면 계시록을 잘 알아야 하지만 대부분 무섭고 두렵고 꺼려져 읽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책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누리는 유익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란 것을 이해하기 쉬운 현대적인 언어로 풀이해준다.

저자 김한요 목사는 요한계시록 강해 시리즈에 ‘예수님의 러브레터’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에 대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의 진지함이 계시록에 담겨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삼위일체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김 목사는 “완전하시고 왕의 왕이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하는 이야기가 계시록이기에 러브레터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덧붙였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사랑을 마음에 품으면 종말의 때에 견뎌낼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김 목사는 강조한다.

“계시록이 어렵다는 선입관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주기적으로 유행처럼 교회를 휩쓸고 다니며 많은 성도가 미혹되는 것을 보는 것도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쉽게 다가가면서 계시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베델한인교회에서 주일마다 계시록을 설교했고 그 계시록 강해를 이번엔 책으로까지 펴내게 되었습니다. 옛날 잘못된 계시록 영화에서 느끼는 공포심이 아니라 따뜻하고 정겨운 하

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 최후의 승리를 보장 받은 성도로서 어려움과 환난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수익금은 전액 제3세계 및 한국 내 다문화권 교육을 위한 온라인 무료 교육 선교사업 단체인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해 기부한다.

또한 〈예수님의 러브레터〉는 온라인에서도 멘토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신앙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굿뉴스 스프레더스(www.mygns.org/revelation_apply)를 방문하면 멘토와 함께 이 책을 공부할 수 있다.

저자 김한요 목사는 이스턴대학교(Eastern University)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필라델피아 소재 웨스트민스터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목회학 석사(M.Div.) 학위를 받았다. 한인 1.5세로서 직접 교회를 개척하고 영어권 목회, 한국어권 목회, 미국 동부와 서부를 모두 경험한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현재 베델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법전에 쓴 연애편지, 단순한 믿음, 끌어안기, 하나님의 프로젝트, 다윗을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 강한 성도 강한 교회 등 다수가 있다.



예수님의 러브레터

故 임동선 목사 추모음악회 열려



故 임동선 목사를 추모하는 음악회가 열렸다.

월드미션대학교가 학교 설립자를 추모하며 음악회를 23일(토) 개최한 **故 임동선 목사의 소천 1주기**를 치렀다.

음악회는 김지훈 목사(동양선교교회)의 기도로 시작해 송정명 목사(월드미션대학교 총장)가 추모사를 전한 후 시작됐다.

음악회는 고인의 헌신적 삶을 기리며 교육-봉사-선교-소망-영광 등 4부로 진행됐다. 윤임삼 교수의 지휘 아래 라크마 챔버 오케스트라와 LA를 대표하는 음악인들이 연주했다. 모든 행사는 남종성 목사(세계복음선교연합회 총회장)의 축도로 끝났다.

한편 다음날인 24일(주일) 오후 4시 동양선교교회도 본당에서 **故 임동선 목사를 추모하는 예배**를 드렸다.



중국 정부는 강제 북송 중지하라

지난 22일 오전 NKIA선교회, 탈북자자유인권위원회, 재미탈북자동지회, 남가주한인목사회, 남가주이북도민중앙회, 워드코리아 등은 LA 중국영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자 북송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런에는 무슨 차로 할까?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자동차 구입할까? 리스 할까?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친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서비스**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Since 1999 www.e-nca.org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 아이비리그 및 UC 계열대학에 진학하고, 타 사립학교 대비 월등히 경제적인 교육비로 소수정예의 교육이 가능한 NCA에서 가르치십시오.

- 졸업생 평균 GPA 4.34 및 SAT 평균 1,350점 기록 (일반 학교 평균 1,000점)
- 지난 19년간 전 졸업생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
- LA에서 유일하게 국제학사(IB) 및 AP 프로그램 동시 실행
- 학생과 교사 비율 평균 10:1로 소수정예의 질 높은 교육 환경
- 새 학기 보충수업 위주의 썸머스쿨 운영 (필드트립 등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 편리한 교내 아파트를 프로그램 운영
- 미주 최초 한인이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명성 함양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K-9th 모집

무료 앱 다운로드

입학 문의 (213) 487-5437 **NCA 킨더가든 모집**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35>

잊지 말아야 할 귀한 은퇴 선교사들

지난 9월 23일 대한민국 공식 해외 파송 선교사 1호이었던 김광명 선교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LA에서 있었다. 향년 88세였다. 이 분은 남편 최찬영 선교사님과 함께 태국에서 사역을 하셨다. 한평생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을 다하시다가 부름을 받으신 귀한 故 김광명 선교사님을 회상하며 잠 감사를 드린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두 분을 시작으로 현재 한국이 파송한 해외 선교사 27,000명이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모님을 먼저 보내신 최찬영 선교사님의 앞날을 위해서도 기도 드리는 바이다.

필자는 몇 년전 감사하게도 노스캐롤라이나 에쉬빌 근처에 있는 블랙마운틴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살롱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고향이고, 블랙마운틴은 사모님이신 룯 그레함 여사의 고향이다.

그분의 고향 블랙마운틴 산 언덕에 약 80여 명의 미국인 은퇴 선교사님들이 한 마을에 통나무 집을 짓고 살고 계셨다. 이들은 모두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 은퇴한 분들이다. 한국에서 은퇴까지 평생 선교에 헌신하셨던 노 선교사님들은 의사, 간호사, 교수, 목사 등의 직함을 갖고 선교 사역을 하셨다.

은퇴 후에 고국을 왔을 때는 그분들을 반겨줄 가족들이 없으신 분들이 많았다. 그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 내외가 재단과 상의하여 예산을 세워 룯 사모님의 고향인 블랙마운틴에 땅을 사고 통나무로 된 집들을 지어 그 은퇴 선교사님들을 모시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분들이 80여분까지 모였다고 했다. 그 마을 어귀에는 블랙마운틴 장로교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예배하기 위해 세운 교회이기도 하다.

당시 그곳을 방문한 한인교계 지도자들이 그 어른들을 초청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준비한 선물을 전해 드리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였다. 전zub병원장 사역을 하신 분, 간호사 사역을 하신 분들,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하신 분, 목사로서 복음을 전파하신 분들 등 30여 분을 만났는데 그들이 은퇴하고 모국으로 돌아오실 때에는 거의 대부분이 가방과 짐 한 두개만 들고 떠났다고 한다. 그 선교사님들은 대한민국의 영혼구원을 위해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헌신한 분들이었다.

필자는 고개를 깊이 숙일 수밖에 없었다. 80, 90에 이르는 연령에도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분들이 많았다. 나는 91세까지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왜냐하면 그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 중에 우리 대한민국을 그때에 통일시켜 주신다고 응답받았다 하여 한국의 통일을 보고 천국 가겠다고 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이다.

또 아리랑을 피아노 반주로 연주하신 쪽 99세 되신 마리아 선교사님, 그 반주에 맞추어 모두가 아리랑을 우렁차게 불렀던 추억이 생각난다.

어느 분은 한국에 묻히고 싶다고 하여서 우리 일행 중 한 분이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의 뜻을 한국 교계에 알려 그렇게 해 드렸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를 은퇴 후에도 두 번째 고향으로 여기며 그리워 하는 그분들에게 한 없이 감사한 마음만 들었다.

우리 한국교회들도 생각하지 못한 한국 은퇴 선교사님들을 위한 큰 사랑을 베풀고 보살펴 주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 내외와 재단에도 감사를 표한다.

“값진 고난의 시간… 북한 사람들 용서”

임현수 목사, 한국 선한목자교회에서 주일 설교

북한에 2년 6개월 간 억류됐다가 지난 9일 석방된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가 최근 방한해 지난 24일 선한목자교회(유기성 목사)에서 주일예배 설교를 전했다.

시편 119편 67, 71절을 본문으로 ‘고난은 제3의 성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임 목사는 북한에서 억류됐던 경험을 토대로 고난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성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임 목사는 설교에 앞서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그는 자신이 석방된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허락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권이었다고 고백하면서 “고난은 세례, 성찬과 함께 제3의 성례라고 하지 않느냐. (북한에서의 억류 경험을 통해) 고난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배웠다. 2년 6개월 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은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 6개월 9일 동안 겪었던 고난의 삶이 30년간 목회했던 시간보다 더 값진 시간이었다. 북한 주민들이 겪는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면서 “북한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용서했다. 언어폭력으로 괴롭히고 위협이 되었던 이들도 모두 나를 연단시키도록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였다”고 말했다.

임 목사는 1996년부터 북한에서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어린 이들을 비롯한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활동을 해왔다. 그는 “북한을 방문했는데 양식이 아무것도 없고 어린 아이들 이 오랜 기간 밥을 먹지 못해 굶어 죽어가고 있었다.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어 지난 10년간 고아원과 양로원을 설립하고 캐나다에서 북한까지 비행기로 150번 오가며 도와 주었다. 그런데 나에게 돌아온 결과는 사형 구형이었다”면서 억류됐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나는 북한 주민에게 ‘주는 자’의 입장이었지만 그들이 사는 고난의 삶에 동참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2년 6개월 간 중노동에 시달렸는데 그러한 노동은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사는 모습”이라며 “북한 동포들이 겪는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 목사는 성경에 나타난 고난을 겪은 인물들인 요셉, 다윗, 예레미야, 바울, 베드로 등을 떠올리며 위로로 받았다고 한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릴 때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말했다.



24일 선한목자교회에서 주일예배 설교를 전한 임현수 목사

을 도와준 대가가 이것인가라는 생각에 처음 종신형을 받았을 때에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컸다.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마음의 짐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기 시작했다”고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대해 나누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임 목사에게 끊임 없이 환상과 꿈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주셨다. 어떠한 인간적인 시도를 통해서도 그를 석방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을 때 불가능해 보였던 석방이 가능해졌다.

임 목사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가 있다”면서 “중노동을 하면서 너무 힘들 때 언제까지 여기 두실 것인지 하나님께 물었다. 그럴 때마다 용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라는 말씀을 주셨다. 더 기도했더니 하박국서의 ‘벼룩 더덜지라도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셨다. 나중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분께서 정하신 최선의 시간에 석방시켜 주실 것이라 믿고 기다렸다. 기다리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목사는 교회사에 억류되어 있던 매일 하루에 8시간 노동을 해야 했다. 4-50명이 되는 군인이 24시간 보초를 서며 지키고 있었고 감시 카메라 수십대가 그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겨울에 언 땅을 깨는 것과 석탄을 캐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는 그는 영하 24-5도의 겨울에 양말 네 개를 신고 비닐로 덮여도 발이 너무 시렸으며 엄동설한에도 하루 8시간을 짝 채워 일을 해야 했기에 육체적인 고통이 밀려왔다고 한다. 정신적인 고통도 그를 괴롭혔는데 언어폭력으로 그를 괴롭히는 북한 군인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심지어 장 장애가 왔고 3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설사를 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

다고 했다. 임 목사는 “어느 날 땀벌에서 일하다 보니 너무 더워 ‘바람을 좀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다. 산으로 둘러싸여 바람이 한 점도 안 불었는데 기도하자마자 대형 선풍기를 튼 것처럼 바람이 몰려들었다. 너무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서 찬양이 절로 나왔고 즐겁게 일했다”고 간증을 전했다.

또한 임 목사는 감옥 안에서 영성을 관리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다. 주일예배를 홀로 감옥에서 드렸으며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30년 간의 목회 경험 가운데 깨달았던 바를 기도하면서 글로 끊임없이 적었다. 몸이 병약해져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한다.

임 목사는 “북한에서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볼 수 없다.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 제 삶이 얼마나 풍성해졌는가. 마치 수도원과 같이 노동과 기도, 말씀 묵상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이었다.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임 목사는 북한에서 보여주신 비전에 대해 나누기도 했다. 임 목사는 농업을 기반으로 평신도들이 자비함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며 “백만 선교사 파송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다. 이제는 평신도, 전문인, 자비함 선교시대가 되었다. 잠들어 있던 평신도들이 깨어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한다”면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종족이 많다.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나.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우리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목사는 또한 북한을 위해 기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이 대치하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위기 상황에서 심판을 유보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지금 은 불필요한 이념논쟁을 하거나 미국이나 중국 등 강대국을 바라보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며 민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했다.

임 목사는 마지막으로 “이 민족이 헛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고 무너져 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 받은 영혼들이 날마다 주의 교회를 채우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설교를 마쳤다. 이미경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자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장 : 임덕순 교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Imitating Christ Ministries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공동체

ICTC 훈련원 12969 Crescent Rd, Surrey, BC, V4P1J8 CANADA
등록 604-535-1800 admin.ictc@gmail.com

2017년 하반기 프로그램 안내

예수님의 선교학교

▶ 전방개척선교에 부름받은 선교헌신자를 위한
Jesus School of Missions

일자 / 10월 23일(월)~27일(금) 4박 5일
강사 / 김병선 선교사 (전 GP훈련원장, 인도네시아 선교사)
박신욱 선교사 (ICM 디렉터, 스페인 선교사)
등록 / 150불(교재, 숙식 포함, 침낭/타월 지참)



김병선 선교사



박신욱 선교사

한국교회 선교사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추수할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선교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함께 훈련 받아 팀으로 갈 때에 더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선교학교 수료 후, 1년 선교공동체 훈련과 여러 교회의 공동파송으로 전방 개척선교지에서 팀사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의 기도학교

▶ 목회자와 사모를 위한 Jesus School of Prayer

일자 / 11월 1일(수) ~ 3일(금) 2박 3일
강사 / 이영환 목사 (대전한밭제일교회 담임목사)
등록 / 60불(교재, 숙식포함, 침낭/타월 지참)



이영환 목사

이영환 목사님은 1980년 대전 한밭제일교회를 개척하여 기도와 전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자권을 누리는 목회철학으로 대전을 넘어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매일 한밭제일교회에서 열리는 목회자세미나에는 전국에서 약 1천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하고 있으며,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삶의 변화와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고린도전서 4:1-5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기름부음을 받은 자는 성령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는 돈도 많고 또 무역이 성행하는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온갖 미신 우상 섬기는 일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웠고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의 형태는 갖추었지만, 영적 신앙의 믿음을 가꾸지는 못하고 인간의 냄새를 풍기는 자기 주장만을 펼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상당히 빈약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1~3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 했습니다.

1. 진정한 그리스도인

교회는 죄인이 들어와 진리와 성령으로 회개하고 거듭나 하늘소망을 목적으로 성령계 이끌리며 쓰임받기 힘써야 하는 곳인데 사람이 사람의 목적을 위해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 분위기를 잘못 만들어가고 있음을 꾸짖습니다. 본문 1절에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했습니다. 우리라고 한 것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를 통칭한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시는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이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자로만 알아야지 우리를 앞세워서 어떤 출세를 한다거나 교회에서 상당히 행세하는 권력을 장악한다거나 하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바나바나 베드로가 다 영혼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하늘나라 가게 하는 목적으로만 힘써야지 자기 이름으로 모이는 그룹을 만들거나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을 만들거나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보면 忠誠(충성), 즉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정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혀 거짓이 없이 내 마음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리고 3-5을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비판하는 것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잘해도 잘 못해도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기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입장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판단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아볼로

과 그리고 게바파도 있다 보니까 게바파나 아볼로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분위기를 장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바울을 나쁘게 말하고 불신하도록 이간질하고 선동하였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2.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우리는 판단의 기준을 3가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 더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이성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판단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그 말을 들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똑바로 설 수 있는 교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올바르게 비판, 판단할 줄 아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들에게는 인색하고 자신을 두고는 무척 관대합니다. 남의 눈의 티는 하나도 그냥 넘어가 주지 못하면서 자기 눈의 들보는 깨닫지도, 뺄 생각도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 받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에 이끌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마귀 앞잡이들로부터 잘 믿는 사람을 판단하고 핍박하고 핍박하며 못살게 구는 것을 당하는 것은 영적 싸움의 한 단면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약력의 앞잡이고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계 요긴하게 잘 쓰임 받고 있기 때문에 약력인 사람들을 통하여 자주 분노하게 하며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상황들을 충고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공격으로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도전해오는 것을 물리치기 위해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마귀는 꼬투리를 잡고 나를 시험도 하고 대적도 하고 꾀방도 하며, 또 지옥에 보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았을 때 전신갑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바로 선 성숙한 사람이 믿음이 아직 초보인 사람을 염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할 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뿌리치는 것은 허세이고 교만입니다.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이 판단은 앞에서의 두 판단보다 훨씬 더 크고 능력 있는 것입니다. 3~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가 믿어져서 회개함으로 죄 용서받고 의로워진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남들로부터 비판 받을 일 없고 내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신앙에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해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으로 의롭다는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 겉만 보고 속은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겉만 보고는 그 사람을 온전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이기적 사고방식의 틀을 가진 상황에서는 그 판단이라는 것은 기준이 모호하고 애매하고 엉터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 날에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까지 다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판단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무서운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열매

현재 자신에게 맡겨진 직책이 있다면 그 직책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참으로 그 자격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서로 시험에 들게 비판하려 하지 말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권면하고 이끌어 주기를 힘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상벌의 심판이 있게 될 때는 겉으로 행한 흔적만 보시고 판단하셔서 야단치시고 상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는지 그 깊은 마음의 뜻을 다 밝혀내십니다.

누군가가 목사님을 대접하기 위해 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것을 목사님 앞으로 가져갈 때에 다른 사람이 나타나 마치

자신이 준비한 것인 양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조차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준비한 마음도 수고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영적 인격으로 성숙되기를 원하십니다. 겉테기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의 정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섬김을 다하는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설혹 자기가 준비를 다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스스로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더욱 성숙된 여유있는 믿음입니다. 목사님을 공경하는 자리에 아직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세워줌으로 그 사람이 목사님을 한 번 더 만나 신앙이 더욱 성숙할 수 있는 대화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향기롭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나타내기를 애쓰기보다 나를 숨기고 낮추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더 이끌어 드리는 지혜는 상당히 성숙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 들게 하는 판단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하늘 영광에 결실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수고는 했지만 공적은 그 사람에게 돌리는 지혜로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그 감추인 공적까지도 다 들추어서 상을 주실 때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믿음이고 진짜 믿어서 사는 신앙인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LA 미주 복음방송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기쁜소리방송	AM1650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LA 미주 기독교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7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1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범 목사
1818 S. Western Ave, #400,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이동규 박사, 학장: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 (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목사교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시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땀까지 흘려서 살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 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4055 Wilshire Blvd. #306-308, LA,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석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길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e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신교회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n)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제 24차 목회자, 평신도를 위한

JHM 영성 컨퍼런스

간증사례

유○○사모/ LA

저는 두 번의 직장암 수술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암이 재발되어 두 번째 수술할 때는 직장의 암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채 봉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3개월에 한 번씩 MRI, CT Scan, 피검사 등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 캄빈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바로 그 날, 잠을 자는데 어떤 큰 손이 나의 직장과 대장을 밖으로 꺼내어 물로 깨끗히 씻어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후 7년이 지난 지금은 전문의로부터 나는 더 이상 암환자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고, 더 이상 매년의 정기 검진이 필요 없다고 의사로부터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 치유 받음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분이 역사하시면 어떤 질병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 밖에 없었던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보답으로 저는 평생 JHM 사역을 도와서 나와 같이 불질병으로 고통 받는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미선 자매/ 사랑의 교회, 서울 서초구

오랜 믿음생활에도 저의 신앙은 곱돌았으며 게다가 결혼 9년차 임에도 아이가 없었고, 시험관 아기를 세 번째 시도해왔지만 실패했고, 남편과의 사이도 멀어져서 저는 이것이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혼을 고려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때 여 캄빈 목사님에게 상담과 기도를 받은 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 차원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방언통변을 통해 제 영의 간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기도생활에 열심을 내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 시험관 아기를 4번째로 다시 시도하곤 마음이 들어 실행에 옮긴 결과 지금은 임신 19주째의 건강한 딸 아이가 제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캄빈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집사/ 대학교회, 서울

저는 원인 모를 어지럼증으로 몇 년 동안 누워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그 때는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오랜 시간 해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내 안에 무량의 악한 영으로부터 짓눌려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축사를 통해 악한 영이 쫓겨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 생활 했음에도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저에게 목사님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이제는 말씀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안개가 걷히는 것같이 선명해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 캄빈 목사님의 성령 사역은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역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데니얼 아빠/ 집사, 서울

50대 중반의 사업가로서 저는 사업상 여러 번의 쓴 잔을 마셨습니다. 모태 신앙인이었지만 믿음 생활은 항상 곱돌았고 사업은 내 머리와 힘으로만 했기에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을 만나 성경을 배우게 되었고 또한 저를 위한 예언사역을 통해 신앙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부터 제 삶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성공해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기도해 오던 삶의 우선 순위가 어느덧 바뀌어 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에는 그토록 노력했으나 되지 않았던 일들이 술술 풀리면서 지금은 사업이 미국, 중국, 동남아로 진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계십니다. 이제 저의 목표는 JHM의 곡간을 채워서 작은 교회 목회자와 세계의 선교사들을 영적으로 돕고자하는 목사님의 비전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쓰임 받는 것이며, 저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힘으로만 사업하며 고생하는 사업가들을 이 사역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저를 재정적으로 회복시키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드보라 김 사모/ LA 사역자

오랫동안 가까이서 지켜본 여 캄빈 목사님은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항상 겸손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언제나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는 귀한 사역자입니다. 이전에 제가 많이 지쳐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그 때 5살 아이로 보이는 제 어린 시절의 모습과 그 옆에 예수님이 저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게 되었어요. 제 어린 시절은 온 가정이 불교에 심취해 있던 때였음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위로와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세능 목사/ 추천성교회 담임, 경기도 평택

올해 8월 여 캄빈 목사님 초청 영성 부흥회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가졌던 그 어느 집회보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체험하고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집회였습니다. 특별히 방언을 오랫동안 사모했으나 받지 못했던 모든 성도들에게서 방언이 터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또한 세밀하고 정확한 방언통변을 통해서 성도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집회는 영적 침체기에 빠져서 목회를 중단하려 했던 저를 변화시켜 새로운 사역자로 거듭나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영성 사역자가 여 캄빈 목사처럼 지적이면서도 성경 말씀에 깊이가 있고 은사를 성경적으로 균형있게 잘 활용하는 분을 거의 보지 못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영성 사역자로 귀하게 쓰시는 신실한 종입니다.

이상목 목사/ 이이리한인교회 담임목사

저희 교회에서의 두 번에 걸친 부흥집회를 통해 성도들의 오랜 영적인 문제가 해결 받고 신앙과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여 캄빈 목사님은 말씀과 영성을 균형있게 겸비한 사역자임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영적 세계에 관한 것들 즉 방언통변, 예언, 축사 사역은 아주 탁월합니다.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므로 JHM 영성 컨퍼런스에 참석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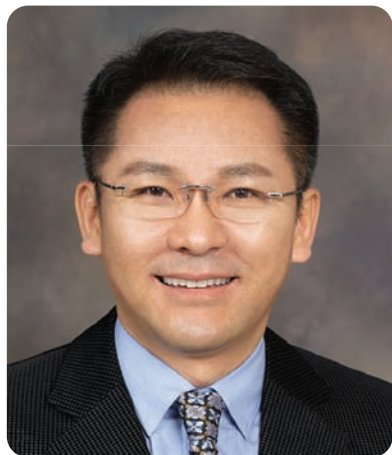
영적 정신적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

이세의 줄기에서 한 짝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11:1-2]

주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잡힌 파워 크리스찬으로의 회복"



주강사 여 캄빈 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GAPCO)
- 치유사역자 (신유, 예언, 축사, 방언통변)
- 영성집회 인도자 (미국, 한국, 중국, 유럽, 서남아 등)
- Kunsan National Univ.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BA
- Miju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M.Div
- Criswell Theological Seminary MA 2yrs. <Dallas, TX>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MA 2yrs.
- Grace Theological Seminary MA <Indiana, OH>
- Grace Theological Seminary Dr. of Missiology Candidate <Indiana, OH>

할렐루야!

제 24차 'JHM 영성 컨퍼런스'를 미국에서 열게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행해 온 지난 23차에 걸친 'JHM'을 통하여 많은 참석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통해 은혜의 회복과 은사를 경험한 후 변화되어 각자의 지역 교회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지나 온 JH Ministry를 통해 말기 위암 환자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환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옛 자아, 죄 그리고 질병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실 제 24차 'JHM 영성 컨퍼런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박 4일 동안 본 집회에서는 성경적인 신유, 예언, 축사, 방언, 방언통변 등의 은사들을 정확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고통 중의 성도에게는 자유함을, 갈급한 영혼에게는 생수와 같은 성령의 기름부으심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제 24차 'JHM 영성 컨퍼런스'를 통해 여러분의 영성과 믿음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십시오.

참가자들에게 차편 제공해드립니다.

- 컨퍼런스 일시 : 2017년 10월 2일 (월, 4pm) ~ 10월 5일 (목, 4pm)까지 3일간
- 장소: 빅베어 Pine Crest Christian Conference Center
- 주소: 1140 Pine Crest Road, Twin Peaks, CA 92391
- 접수 마감일: 2017년 9월 30일까지
- 참가비: 300불
- 준비물: 성경, 세면도구

JHM 초청대상

- 육체적인 질병과 씨름하며 고통중에 있는 분
- 영적 세계에 눈은 열렸지만(예언, 영분별 등) 분간이 잘 되지않아 짓눌려 있거나 궁금한 분
- 영적 은사를 사모하는 분
- 방언을 하지만 확신이 없거나 방언은사를 사모하는 분
- 진정한 영적싸움과 그 승리의 원리를 알기 원하는 분
- 죄인 줄 알면서도 자기의로 절제할 수 없는 각종 중독 (마약, 술, 도박, 음란) 등으로 고민하는 분
- 많은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자아문제와 신앙성장 문제에 걸려 고민하는 분
- 복잡한 문제에 얽혀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채 방황하는 분
-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성경적인 돌파구를 찾기 원하는 분



주소: P.O. Box 74069, Los Angeles, CA 90004

문의전화: 213.806.9990



애틀랜타 복음화 대회가 열렸다.

2017 애틀랜타 복음화 대회 성황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 이재훈 목사 강사로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송상철, 이하 교협)가 주최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2017 애틀랜타 복음화 대회'가 지난 20일(수) 오후 8시 성약장로교회(담임 황일하 목사)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한국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강사로 나선 이번 복음화 대회는 '믿음의 새 아침'을 주제로 24일(주일)까지 마리에타 서부지역과 귀넷 동부지역에서 나눠 진행됐다.

첫날 집회에서는 이번 복음화 대회에 이재훈 목사와 동행한 윤형주 장로(온누리교회)가 설교에 앞서서 찬양과 간증을 전했다. 윤 장로는 "저 장미꽃 위의 이슬"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가르쳐 준 찬송가로 이 곡이 나의 찬송이며 우리 가족 모두의 찬송이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전에는 찬양사역을 다니며 마이크 시설이 안 좋거나, 관객 반응이 나쁘면 노래하지 않았다. 하지만 목소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 변화됐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더 많은 일을 행하셨다"고 간증했다. 윤 장로는 "혈액암으로 투병하다가 임종을 앞둔 소녀 옆에서 그녀가 소천할 때까지 5시간 넘게 찬양을 부르기도 했다. 복음화 대회에서

의 CD 판매수익금은 혈액암 투병 환자를 위해 사용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재훈 목사는 "웃자라만 만져도"란 제목으로 설교하며 참석한 교인들에게 편안한 웃음과 함께 은혜와 감동을 전했다.

이 목사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모습과 다르다. 사람이 많고 인자한 그 분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어머니의 간청에 침묵하신다"며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신다. 그것은 우리를 친밀한 관계로 만나 주시려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어릴 적 슈바르츠를 해 봤을 것이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3일 이재훈 목사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응열 목사와 함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란 주제로 애틀랜타 연합장로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윤수영 기자



타코마 기독교교회 연합회 및 목사회 총회가 열렸다.

타코마 기독교교회 연합회 총회 및 타코마 목사회 총회 개최

곽호준 목사 두 단체 회장 겸직

타코마 기독교교회 연합회 총회와 타코마 목사회 총회가 지난 18일 타코마 새생명교회(임규영 목사 시무)에서 열렸다.

타코마 목사회 임원으로는 회장 곽호준 목사(타코마 연합장로교회), 부회장 윤법균 목사(믿음의교회), 총무 권상길 목사(삼일교회), 회계 이성은 목사(행복한 침례교회)가 선출됐다. 곧 이어서 진행된 타코마 기독교교회 연합회 총회에서 곽호준 목사를 회장으로 선출하였고, 새 임원진

구성은 곽 목사에게 일괄 위임했다. 이로써, 새 회기에는 곽호준 목사가 타코마 기독교교회 연합회와 타코마 목사회 회장을 겸하여 섬기게 됐다.

한편, 이날 안건 토의를 마친 후 지난 15일 별세한 타코마 산소망교회故 전현신 목사의 전구 환송 예배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했다.

폴 원 기자

풀러 한인목회학 박사 과정 공개강좌

풀러신학대학원이 워싱턴 주와 오레곤 주, 캐나다 밴쿠버 지역 한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5일(주일) 오후 4시, 웨드필웨이 제일장로교회(담임 최병걸 목사)에서 공개강좌 및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강좌 주제는 "사막의 영성과 도시 목회"로 풀러신학대 한인목회학 박사원 디렉터인 조의완 교수가 나서서 강의할 예정이다.

조의완 교수는 "분주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21세기 도시목회의 대안을 사막의 영성 가운데 찾고자 한다"며 "현대의 목회적 상황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과 사막의 영성의 주요 주제들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막의 영성과 도시 목회는 현재의 목회 환경

과 나의 자리를 확인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더욱 깊은 관계성 속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목회 영성을 다룰 것"이라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사막으로 물러났던 사막의 교부들의 삶과 영성을 모델로 삼아 21세기의 도시 목회에 대한 대안을 담아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풀러신학대 한인목회학박사원 학위과정 입학자격은 한국교육부 혹은 ATS, ABHE, TRACS의 정식 인가신학교 M.Div. 학위 소지자로 평점 3.0 이상 M.Div. 졸업 후 3년 풀타임 목회경력을 가진 자이다. 등록 마감은 10월 2일(월)까지며 신입생들에게는 특별 장학금 혜택을 제공한다. 문의) 425-647-3847

교회 소식

LA 지역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만2세를 위한,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준비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213)909-6473 / www.missionla.org

장태원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한천영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강진웅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cl.org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213)383-2600, (213)383-2602 / laopendoor.org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김민수 담임목사

남가주 새언약교회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도하는 교회
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T. (213)434-1083 www.new2011.org

강양규 담임목사

예향선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김중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믿음, 공,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정장수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323) 766-9922 / www.laimch.com

류종길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신승훈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호를, 소, 천 초 정신의 호를, 바른교회인의 호를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이명수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hyun.org

민종기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곽부환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애가 삶이여!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강지원 담임목사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갯스윙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축복의 통로되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십자가 공동체
2727 N. Duffer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신용환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56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김성원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조승철 담임목사

무리에타 한인장로교회
믿음과 충성으로 서자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김성수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침례교 오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람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 OT 월-금 오전 6:0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하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예장 통합 총회 중 모습

올해 장로교 총회 최대 이슈는 "동성애"

통합 "항존직 자격 박탈" 합동 "집례 거부 가능"

지난 9월 18일부터 한국에서 각 장로교단 총회가 진행된 가운데, 각 교단에서 '동성애' 관련 결의가 이어졌다. 교단들은 앞다투어 동성애자 관련 규정 도입을 결의했다.

먼저 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최기학 목사)는 신학교육부 보고 중,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에 동성애자가 입학할 수 없도록 결의했다. 학칙에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는 입학할 불허한다"는 내용을 삽입하고, 학교 정관에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가르치는 교직원"은 총회 결의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조치한다"는 문구 삽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의가 주무관청인 교육부의 허락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넷째날 사무처리에서 "동성애자와 동성애 동조자 및 옹호자의 본 교단 신학교 입학 금지하고 동성애 신학을 지지하거나 가르치는 교직원의 임용을 금지한다. 사후에 적발되었을 시 학교 상벌위원회와 총회에서 징계 시별한다"는 신학부의 청원을 받아들였다. 합동 총회는 또 "동성애자와 본 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할 수 있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했다.

뿐만 아니라 헌법 시행규정 제26조에 '직원 선택' 규정 6항을 신설, "동성애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동성애자와 동성애를 지지·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항존직, 임시직, 유급 종사자) 및 신학대학 교직원이 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통합 총회는 폐회 직전 총회 결의대로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입장'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총회는 "제 102회 총회를 마치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창조와 결혼의 원칙을 따를 것과 앞으로 100만인 서명운동을 포함하여 동성애 및 동성결혼에 대하여 신앙 양심에 입각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예장 고신 총회(총회장 김삼석 목사)에서는 부총회장 김성복 목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동성애는 성경적 원리에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동성애 반대 운동이 있다면 우리 교단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고, '성적 지향' 항목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 다른 교단들과 연합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장 총회에서는 '성소수자 교인 목회를 위한 연구위원회 구성과 활동 현의 건'이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예장 합동 총회(총회장 전계현 목사)도

이대웅 기자

사우스베이, 토렌스, 가디나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예배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EM성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종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 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2부예배(EM) 오전 11:00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모이는 교회, 흠뻑주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절문(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및/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합창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경대림회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bh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일민예배 오후 1:30
아름답고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모임여 협과 갈고리(월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후 12: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 (310) 715-9902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어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 (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친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절문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익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3300 세계비전을 이루는 생명공동체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LA에베레츠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무례해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월-토 5:30 토 5: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8 348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Tel: (818) 363-5887 Tel: (213) 232-3163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O. C. / 엘바인 지역

결혼교섭, 사모교섭, 부부교섭, 아버지교섭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기도회 오후 9:00pm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무례해 오전 8:00
(2부) 1:30pm 금요일예배 오전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다움날) 7:00am
화요일중보기도회 7:00pm 토요일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잠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찬양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부)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받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정동성 담임목사

나성교회
Nasung Church

1620 N.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www.nasungchurch.net




'다시 복음 앞에' 집회가 오는 10월 말 종교개혁주간에 열린다. ©복음기독교동맹

"다시 복음 앞에" 집회 올해는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 의미 되새기며 '온전한 믿음' 조명

2017 '다시 복음 앞에' 집회가 '오직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성남시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유기성 목사)에서 열린다.

'다시 복음 앞에' 집회는 시대의 수많은 도전과 공격 앞에 복음기독교동맹 선언문 및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복음과 기도를 삶의 중심 가치로 채택하고 2년마다 진행되는 행태였다.

2011년 이후 2년마다 열려 왔던 '다시 복음 앞에' 집회는 올해에는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중 '오직 믿음'을 주제로 다양한 믿음의 증인들이 강의와 간증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첫 번째 모임인 2011년 대회는 '오직 은혜의 복음', 2013년 대회는 '오직 성경', 2015년 대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매 회마다 3~4천여 명이 참여했다. 주최 측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2017 '다시 복음 앞에' 대회는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완전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온전한 믿음에 대해 집중 조명하며 각 영역에서 순종하고 있는 증인들의 삶을 청취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번 대회 강사로는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임석순 목사(한국중앙교회), 김홍의 선교사(LOG미션), 이재만 교수(창조과학선교회), 이태희 목사(그안에진리교회), 민경동 장로(전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총장) 등 10여 명이 맡는다.

이대웅 기자



허리케인 어마 피해자들을 찾아가 함께 기도하는 팀 티보 ©페이스북

美 풋볼 스타 팀 티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있다”

최근 앨라배마의 한 고등학교를 찾은 팀 티보가 14,000명 가량 되는 학생들에게 “비록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삶에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격려했다.

올해 30세의 나이로 헤이즈만 트로피를 수상한 풋볼 스타인 그는 지난 20일 알버트빌 고등학교의 애기 스타디움에 연설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그는 플로리다 대학을 갈 것인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앨라배마 대학을 갈 것인지를 두고 어려운 선택을 했던 경험을 전했다. 고등학교 3학년 이던 2005년, 티보는 한 목회자에게 자신의 선택에 대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티보는 기도 끝에 플로리다 대학을 선택했다.

그가 두번째 눈물을 흘린 것은 2009년 챔피언십에서 앨라배마에 졌을 때였다. 그는 “난 매우 감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울기 시작했다”면서 “앨라배마가 날 울게 만든 것은 그것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나 티보는 플로리다 대학에서 풋볼

을하기로 결정하고 챔피언십에서 2번이나 승리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 모두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우리가 비록 그 계획을 보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않고 계신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했다.

이번 모임을 주관한 제메인 데이비스는 미국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티보가 참석한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역전승의 귀재”로 알려진 팀 티보는 지난 2011년 덴버 브롱코스 시절 팀을 플레이오프에 올려놓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우며 프로 풋볼 최고 스타로 떠올랐다.

대학 시절 눈 밑에 말씀 아이패치를 쓰고 다니며 자신의 얼굴을 ‘전도판’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그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드러냈다.

또 승리를 거둘 때마다 경기 중간 중간 한 쪽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티보잉’ 열풍을 낳았다.

강해진 기자

호주 기독교인 여성

동성결혼 반대투표 독려했다가 해고

종교적·정치적 신념 때문에 해고는 불법 소지

호주의 한 아동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동성결혼에 반대한다며 계약직으로 일하던 기독교인을 해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성결혼 찬반 국민투표에서 반대표를 찍는 게 맞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호주는 지난 12일부터 ‘동성커플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해야 하는가’ 문제로 찬반 국민투표를 우편으로 진행 중이다.

호주 현지 매체에 따르면, 메이들린으로 알려진 이 여성은 8월 29일 페이스북에 결혼연맹(Coalition for Marriage)이 올린 글 ‘(동성결혼) 반대(투표) 해도 괜찮아요’(It’s OK to Vote No)라는 내용의 필터를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에 추가했다. 이는 하루 만에 사라지게 돼 있었다.

올린 지 일주일 후인 지난 주일, 그녀는 직장 ‘캐피탈 키즈 파티스 인 캔버라’ 상사로부터 해고됐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았다.

그녀의 상사인 마들린 심스는 “동성애 혐오적인 관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회사에 해로운 뿐 아니라 회사의 소유주로서 저의 개인적인 가치와 도덕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동성애자 직원도 있고, 동성애자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당신은 물론 당신의 견해를 밝힐 자격이 있지만, 동성에 공동체에 속한 이들과 친구들에게 치명적인 감정의 고통을 주는, 극도로 해로운 어떤 것을 드러내놓고 알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도덕을 존중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심스는 같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도덕적으로 지나칠 수 없는 문제였다”고 밝혔다.

메이들린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필터를 적용하자마자, 그녀의 동료이자 심스의 남동생은 이를 삭제하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이를 거절했고 이 때문에 심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메이들린은 “기독교인으로서 나의 신념을 대변하는 것은 두렵지 않다. 우리 모두 ‘찬성 투표합시다’라는 필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해도 괜찮습니다’라

는 내용의 필터도 있다. 이를 올릴 필요는 없었지만, 침묵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후 심스는 페이스북에 왜 메이들린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는지 밝혔다. 그녀는 “오늘 나는 ‘(동성결혼을) 반대해도 괜찮다’는 느낌을 공개적으로 알린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동성결혼에 반대하려는 욕구를 알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혐오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면서 “(동성결혼) 반대는 괜찮은 일이 아닙니다. 동성애혐오는 괜찮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의 의견이나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 진실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삶의 문제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으며,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메이들린은 인터뷰에서 “내게는 많은 동성애자 친구들이 있다”고 밝히면서 자신이 동성애혐오자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녀는 “내가 미니 마우스 차를 하고 행사에 참석했는데, 그곳에 동성애에 끌리는 아동이 있다고 하자. 난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그 아이를 사랑할 것이다. 난 모두를 사랑한다. 난 증오를 가진 사람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디언지는 심스가 메이들린을 해고한 것은 호주의 ACT 차별금지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종교적, 정치적 신념을 보호하는 법이다. ACT 인권위원회 소속된 카렌 투헤이 위원은 “심스가 계약자의 종교와 정치적 견해 때문에 그를 해고한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를 기초로 고소할 수 있다. 이것이 ACT 민사 및 행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드니에 위치한 법률회사인 헨리 데이비스 요크에 소속된 스칼렛 리드 변호사는 “메이들린이 심스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6개월 간의 기간이 필요한 임시직원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녀는 그러나 “이 특정한 인물은 불공정 해고를 주장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요구사항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학교 11:00 AM **이원준**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11:00 AM 새벽예배 화-금요일 5:30 AM
 주일 3부예배(영어) 1:30 PM 토요일 8:30 AM
 금요찬양예배 7:30 PM

남가주가스펠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email: 8132gospelchurch@gamil.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8:00 생가족예배 : 매일 4배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원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베델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8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2:20 **민승기**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c.org

1부예배 오전 7:15 생인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빈**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C대학원부 오후 2:00

얼바인은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박경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청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일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김인철** 담임목사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Orange Cannan Presbyterian Church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6: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삼일이 예배 :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 :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토기장이교회

1937 W. Chapman Ave. #105, Orange, CA 92868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 info@Pottersccc.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PASTOR JUSTIN KI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PASTOR HAROLD KI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PASTOR JAMES KWAK**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 9:30 AM **PASTOR RONNIE PARK**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PASTOR SAM KOH**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ola.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PASTOR STEVE CHANG**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ACADEMIC YEAR 2017~2018년도



온누리 장학생 모집공고

신청기간: 6월 1일~10월 1일 **제출마감: 10월 1일**
신청접수 e-mail: ancسفug@gmail.com

자격 및 장학금 종류

1. Korean American Christian으로 신앙이 돈독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으로서 학업수행에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자
2. General Academic Scholarship
 - 2year Junior College Scholarship
 - 4year College/University Scholarship
 - Graduate School Scholarship
3. 해외 한인선교사 자녀 장학금
 선교사 자녀로서 미국내 대학교 학업 수행에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자

ancسفug@gmail.com을 통해 신청서를 요청하시면,
자격사항 및 관련 서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의사항

1. online 접수만 가능합니다.
2. 신청 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신청서, 또는 미비된 신청서는 선발과정에서 제외됩니다.
3. 제출된 모든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4. ANC 온누리 장학금은 수혜자의 특권이지 신청자의 권리가 아니므로, 어떠한 이익제기도 수용되지 않습니다.

ANC 온누리교회(담임목사 김태형)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T: 818.834.7000 / www.anconnuri.com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담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담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담교회 담임목사

생명수 한의원

Living Water Acupuncture

전문 진료 과목

- 한방 신경정신과
- 불면, 불안(공황장애)
- 우울증, 조울증, 회병
- 과잉행동장애(ADHD)
- 조현병(정신분열증)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1장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22장1~2절)



배 상석 원장
 Joshua Bae L.Ac.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한방 임상 30년
 중차협회 정회원

Tel. 714-761-5454
 520 N. Brookhurst St. #208, Anaheim, CA 92801



악의 삼중구조를 파악하라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거나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고의 범위가 줄어들어, 아집과 고정관념에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종종 기독교인이 편파적이고 편견에 얽혀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겠으나, 적어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귀의(歸依)하겠다는 말입니다. 곧 사랑의 그리스도를 향해 돌이키고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귀의하겠다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겠다는 것이요, 새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편견에 따라 산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겠다는 헌신의 다짐이며, 사랑을 길을 향한 방향설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자,” “선으로 악을 이기자”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처음부터 자신의 뜻을 선악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고집불통(will-fulness)의 사람이 아니라, 더 높은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순종하려는 자발성(willingness)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신자를 우리는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항상 자아와 자기 의지가 승리하는 사람을 우리는 교만하다고 합

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시작하였습니다.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합니다. 사탄은 그 속임을 위하여 세상의 세력을 이용합니다. 역사상의 제국과 무서운 세력을 가진 황제들은 인간의 선택의 표상이 아니라 악함의 표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보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와 로마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종 적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풍요로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숭배를 받으므로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계시록 13장은 악의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용 곧 사탄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선지자를 통해서 악의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것이 악의 삼중구조입니다.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를 모방하는 거짓선지자를 통하여 구조적인 악의 진영을 이룹니다. 악의 삼중구조는 하나님과 여인의 후손인 그리스도와 여인의 후손들로 표현된 교회를 모방한 패러디(parody)입니다. 악의 삼중구조와 활동은 선한 그리스도인의 행동반경을 지시하여 줍니다.

사탄은 회개 없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기독교인의 역사가 엄청난 범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중대한 이유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악과 타협하였기 때문입니다. 선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마다 악의 심각성에 대하여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하게 된다는 것은 순진함, 즉 ‘나이프’(naive)하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선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적어도 사탄에게 속거나 악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면, 신자라도 부지중에 악에 이용되거나, 타협하거나, 속게 됩니다. 사탄의 기본 전술은 속임수입니다.

바쁘세요?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건네는 말 중에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바쁘시죠?”입니다. 언제부터 “목사=바쁜 사람”이 되어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한가한 목사는 높고 먹는 목사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바쁜 것은 사실입니다. 몸이 두 개였으면 생각하는 저를 보면 바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참 많이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세 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바쁜 동적인 시간을 위해서 정적인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그의 말은 우리가 왜 바빠야 하는지 따갑게 일침을 가하는 교훈입니다. 시카고 인근의 윌로우크릭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는 “Too Busy not to pray(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란 책을 펴내실 정도입니다.

바쁘면 우리의 스케줄에 잡힌 일들이 우선순위에 따라 줄을 서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할 일부터 미뤄도 될 일까지 일렬종대로 늘어섭니다. 우리는 보통 바쁘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시간이 기도시간인데, 마틴 루터는 바쁠수록 기도가 제일 순위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쁠수록 일을 급한 순서대로 하지 말고,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라는 교훈입니다. 바쁘면 우리 자녀들과의 대화가 뒤로 밀어집니다. 바쁘면 예배 시간을 생각합니다. 바쁘면 하나님의 교제 시간, 기도 시간도 건너뛰니다. 바쁘면 내 영혼의 비타민 같은 독서 시간도 사라지고, 바쁘면 몸의 건강을 위해 투자하는 운동도 못합니다. 결국, 바쁜 스케줄은 몸과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아빠, 바빠, 나빠”라고 아이들이 하는 말처럼 우리가 바쁜 이

유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할 때인 듯합니다.

C. S. 루이스는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마귀가 성도를 유혹하는 방법을 그의 조카에게 전수하는 31통의 편지에 풍자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성도를 정신없이 바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해야 할 중요한 일, 예배, 기도, 패밀리 타임, 독서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 전략입니다. 요즘 많이 바쁘십니까? 정신없이 바쁘시다고요? 혹시 마귀 전략에 걸려든 것은 아닌지요?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겨를도 없고, 기도할 겨를도 없고, 어려움 당한 친구 집을 방문해 위로할 겨를도 없고, 자녀들과 대화할 겨를도 없고, 조용히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겨를도 없고, 영적 성장을 위해 배우고, 훈련받을 겨를도 없고, 부모님 찾아볼 겨를도 없고, 저녁 식사 후 동네 한 바퀴 배우자와 함께 산책할 겨를도 없고, 남들 다 봤다는 화제의 영화 한 편 볼 겨를도 없고, 병원에 입원한 조카 찾아가 손 붙잡고 기도해 줄 겨를도 없다면 무엇을 위해 바쁘십니까?

막을 수 없을까



김성민 목사
 펠리세이드교회

하루가 멀다하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심각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 더 이상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고 새로운 머리카락을 나오게 하는 제품들을 소개 받아 여러 번 사용하게 되었다. 그 중에는 샴푸 시에 사용하는 것, 바르는 것, 먹는 것 등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사용했다는 것을 나도 여러 번 사용해 보았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빠져 나가는 속도를 멈출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나에게 좋은 것은 머리에 신경을 더 쓰다 보니, 알게 모르게 머리카락을 잘 간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샴푸 시에 너무 심하게 비비지 않고 머리에 스스로 마사지도 해 주며, 좋다고 하는 것을 바르고 기다리며 소망을 갖는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멋쟁이가 되어가는 것 같다. 결국 머리가 점점 더 빠지겠지만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해도 나만의 멋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도 그러한 것이 아닐까? 하루 아침에 내가 바라는 기도가 응답되고 모든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상황의 변화가 빨리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에 어려움이 생긴다. 하지만 믿

다. 무슨 멋있을까? 천국 백성의 멋이다. 그 멋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멋이고, 사랑의 멋이고, 또한 성숙의 멋이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나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골로새서 3장 1-3절)라고 멋진 생활을 말씀하신다. 마지막이 죽음이라면 멋을 부릴 이유가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결국에는 대머리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가꾸는데 영원한 천국을 앞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멋 좀 부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알고 낮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깊은 마음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멋을 부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 분명하다. 머리가 다 빠져도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고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새로워져 멋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음으로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는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희망차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으로 믿으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상황의 변화가 없어도 숨쉬 수 있고, 먹을 수 있지 않은가? 그 뿐인가? 천국 소망으로 교회를 다니며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섬기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 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감격인가?

만일 세상에 소망을 둔 삶을 산다고 한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결국에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향하여 가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 멋을 부리게 되는 것이

“문명 발달할수록... 기독교 캠프 ‘원초적인 것’ 제공을”

한국실천신학회, ‘다음세대 목회와 통합’ 주제 학술대회

시대가 발전되고 문명이 고도로 발달할수록, 교회학교 ‘수련회’가 더욱 더 ‘원초적인 것’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재구조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음세대 목회와 통합의 실천신학’이라는 주제로 23일 서울 창천동 신촌장로교회(담임 조동천 목사)에서 열린 제65회 한국실천신학회(회장 조재국 박사) 정기학술대회에서 이종민 박사(신안산대)는 ‘임시공동체로서의 캠프: 초막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국실천신학회는 매년 가을 목회 현장에 도움이 되는 주제와 사례를 중심으로 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종민 박사는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현대인들에게 자연으로 돌아가 쉼을 얻고 휴식을 취하는 것은 삶에 꼭 필요한 요소가 됐고, 캠핑 문화는 재충전의 아이콘이 됐다”며 “캠핑은 야외 여가활동뿐 아니라 교육적 목적을 갖고 진행되는 야외 공동생활의 한 형태로서, 성경에서도 유목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박사는 “40년간 광야생활을 할 때 거처했던 야영지 또는 막사는 단순한 의미에서 캠프이지만, 생활을 넘어 특별한 목적을 가진 ‘조직화된 캠프’도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이 역사를 상고하기 위해 정해진 장소에 초막을 치고 옛 조상들의 경험을 재현하는 모습(초막절 · 레23:42-43)으로서의 캠프 활동이 그것”이라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삶의 일부로써뿐 아니라 교육적 목적을 갖고 캠프를 했다. 이처럼 캠프이란 단순한 거주 의미의 뛰어넘어 장막생활로써 삶과 가르침을 복합시킨 교육적 도구이자 현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을 새롭게 삶에 접목시킬 수 있는 교육적 용어”라고 밝혔다.

초막절 절기를 통해 배울 수 있

는 원리도 설명했다. 첫째, 고대 농경 사회에서의 축제일임에도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속 갱신할 수 있게 만드는 교육적 철학이 있다. 둘째, 1년 내내 진행되는 제사와 달리 시·공간적 독특성을 갖고 주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교육적 도구이다. 셋째, 구체적인 제의 요소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드러지는 제사인 동시에, 순례의 여정을 걸으면서 명시적 교육 목표를 갖고 진행되는 교육적 활동이다. 넷째, 신명기와 느헤미야처럼, 모세와 에스라 같은 훈련된 지도자를 통해 말씀이 낭독되고 재해석돼 가르쳐짐으로써 각자의 삶에 말씀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게 하는 교육적 리더십이다.

이후에는 ‘기독교 캠프’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기독교 캠프이란 ‘영적 목적을 갖고 야외 환경 속에서 훈련된 지도자 아래에서 하는 연장된 집단 경험(Lloyd Mattson)’으로, 여기서 ‘연장된 집단 경험(an extended group experience)’이란 기존 교회교육과는 달리 소그룹을 중심으로 24시간 동안 교사들과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것”이라며 “2박 3일 또는 3박 4일간의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 시간적 차원에서 계속 교사와 함께 거주하면서 일어나면서부터 잠자기까지 교육이 진행되는 교육이 이뤄진다. 이러한 캠프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전인격적 측면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노출되는 점”이라고 했다.

이 박사는 “이러한 ‘연장된 집단 경험’의 또 다른 특징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임시성(temporary)을 내포하고 있는 점이다. 즉 캠프 활동은 24시간 교사들과 학생들이 함께 있지만, 시작과 종료 시점이 있는 ‘임시적 공동체’”라며 “임시적 공동체로서의 조직 캠프는 교사와 학생들 또는 학생들 간에 투명



한 캠프에서 기도하는 청소년들

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제공받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적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임시적 교육 공동체로서의 조직 캠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합당한 캠프 운영 철학이 필요하다. 이는 △프로그램 자체보다 참여자에게 모든 시선과 관심을 집중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교육자가 피교육자를 교육자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상교육과 달리, 상담자가 참여자의 자리로까지 내려가 그들의 눈높이에서 서서 교육을 진행하는 ‘성육신의 원리(Advent & Incarnation)’에 의해 운영된다 △모범(Modeling)을 통해 보여지고 실천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참여자는 상담자를 통해 배운 것을 상담자와 함께 행함(learning by doing)으로써, 직접 해 보는 것(Practice of experiential activities)으로써 터득한다 등이다.

그는 “앞에서 발견한 초막절의

성경적 원리와 현대 기독교 캠프의 기본 구성요소들을 접목시킨다면, 기독교 캠프를 위한 다섯 가지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며 이를 소개했다. 첫째로 캠프의 장(Setting)으로써의 ‘초막’, 둘째로 캠프의 연장된 임시적 시간(Temporary)으로써 ‘절기 시간’, 셋째로 캠프의 목표(Objectives)로써 ‘절기의 목표’, 넷째로 캠프의 공동체적 경험(Group Experience)으로써 ‘절기 활동’, 다섯째로 캠프의 훈련된 리더십(Trained Leadership)으로써 ‘절기 준수’에 대한 지침 등이다.

이종민 박사는 “임시적 교육 공동체로써 캠프는 오늘날 교육이 추구하는 현상과는 달리, ‘원초적 교육의 장’으로 교육자들과 피교육자들을 초대하고 있다. 고도로 발달된 기계 문명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 피교육자들을, 자연이 펼쳐져 있는 야외로 이끌어 내는 교육이 캠프”이라며 “뿐만 아니라 타인과 고립돼 살아가는 피교육자를 면대 면으로 교육자와 만나게 하는 활동인 동시에, 피교육자 간에 공동생활을 통해 함께 어울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공동체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또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러닝 환경과는 상반되게, 피교육자를 ‘임시적 시간’ 안에 머물게 하면서 정해진 공간 안에서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의 연장된 그룹 역동을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임시적 교육의 장”이라며 “특히 가난한 정착민으로 농경문화에 익숙해져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통해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묵상함으로써 미래를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캠프는 이 시대가 진정 요

구하는 교육의 장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따라서 임시적 교육 공동체인 캠프는 보다 원초적인 장과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으로 하여금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하는 분야는 신학교육으로, 특히 교회교육을 담당하는 신학생들을 교육함에 있어 신학과 교육학의 균형이 필요하다. 또 다양한 계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교사교육과, 규제와 법규에 맞는 캠프장 설비, 프로그래 개발을 위한 캠프 전문교육과 리더십 개발도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기도원을 소유하고 있으나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대안이 부재한 상태이고, 여러 사건사고로 캠프를 통한 교회교육과 학교교육이 위축된 상태”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맞는 시설 구비와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는 캠프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발표 후 황병준 박사(호서대)를 좌장으로 박관희 박사(나사렛대)가 논찬했으며, 신건 목사(신촌성결교회 청년부)가 청년목회에 대한 사례 발표를 진행했다. 오후 발표에서는 김세광 박사(서울장신대)를 좌장으로 손문 박사(연세대)가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융합모형: 의학과 신학의 융합연구에 관한 시험적 고찰’을 발표했으며, 김정우 박사(송실대)의 논찬과 김혜경 목사(신촌성결교회 교육담당)의 사례발표도 진행됐다.

이대웅 기자



이종민 박사(오른쪽)가 발표하고 있다.

교회 창립 50주년 집으로 오는 길

사진으로 보는 나성제일교회 50년사 화보 출판 감사예배 및 홈커밍데이

1967년 창립된 나성제일교회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아 지난 50년간의 흔적을 모아 <사진으로 보는 나성제일교회 50년사>를 출판하였다. 이에 출판기념 감사예배 및 HOME COMING DAY를 마련하여 그동안 교회를 섬겨왔던 모든 분들과 인근 모든 성도들을 초청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으며, 이날 참석하는 모든 분들께 만찬과 함께 화보집을 선물로 증정한다.

The

50th

Anniversary

교회 창립 50주년 집으로 오는 길

- 일 시 : 2017년 10월 1일(주일) 오후 4시
- 장 소 : 나성제일교회 본당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 연락처 : 213-388-7101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한미사랑
 한미사 Zo'e 조애
 Tel: (213) 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 8th St, #208, LA, CA 90057(8th & Lake St.) (일수도 예약 필수)

CD PRINTING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린트CD + CD 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 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인하소반주 각종 김치

626-731-7864 (\$40이상 주문시) 무료배달

갈비만두, 매운갈비만두 (40개 \$20)
 김치교자, 부추교자 (50개 \$20) 왕만두, 팔짚빵 (10개 \$10)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 (213) 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 580-2424
 (310) 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 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류마티스 관절통증 }
 ✓ 발가락 { 퇴행성 관절통증 }
 ✓ 마디관절 { 손목, 발목 질환 }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우울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만성두통, 요통
 • TMJ 턱관절 장애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역!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 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월~금: 10시~5시 / 토 10시~2시

2018 NEW CALENDAR

Best Seller
2018 성경 통독 도우미 달력
 최소 100부 \$3.5 ea

주님과 함께하는 열두달의 삶을 컨셉으로 만들어진 주님미디어의 2018년 달력은 두가지 버전으로 준비 되어 있습니다.

일반캘린더와 1년통독달력으로 원하시는 것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기본수량은 100부이며 다른수량을 원하시는 교회나 공공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시면 바로 상담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님안에서 승리하시고 기쁨의 2018년도를 준비하시길 기도합니다.

323.265.0244

캘린더 180mm x 160mm

70mm x 250mm

캘린더 그래픽 특성질적 주님미디어에서 직접 쓴 붓글씨로 제작하였습니다. 달력이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New 말씀통독 달력버전
 기도제목 칸과 말씀통독할 수 있도록 모든날짜에 말씀 범위가 적혀있습니다.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열두달의 삶을 컨셉으로 만들어진 주님미디어의 2018년 달력은 두가지 버전으로 준비 되어 있습니다.

323.265.0244

캘린더 그래픽 특성질적 주님미디어 323.265.0244

캘린더 180mm x 160mm

70mm x 250mm



엠마우스 니코폴리스의 모습.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44)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을 지상에서 지내시면서 11번을 사람들에게 보이셨는데 그중에 가장 따뜻하고 소망적인 만남이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일어났다. '따뜻한 샘' 혹은 '온천'이란 뜻으로 알려진 엠마오는 성경에 두 번 언급된다.

마가복음은 두 제자가 한 촌로 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더 자세하게 거리와 촌락의 이름이 엠마오라고 기록되어 있다.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60 스타디온(60×192m=11.5Km, 한글 성경에는 25리)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고 기록하였다.(눅24:13)

오늘날 텔아비브에서 1번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벤구리온 공항을 지나 10km쯤 더 진행하면 왼쪽으로는 엠마오, 오른쪽으로는 나손이 나온다.

사실 개신교인들은 엠마오를 잘 찾아오지 않지만 로마천주교인들은 그렇지 않다. 천주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로 가는 도로변에 위치한 엠마오-니코폴리스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발현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당이 있던 곳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성당 벽 일부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실제적으로 현재 천주교회에서 인정한 엠마오기념성당은 엘 쿠베이베(El-Qubeibeh)에 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장소나 위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절망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는 제자들 중에 두 제자를 만나주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지에서는 언제나 장소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

진 엘 쿠베이베나 아부고쉬를 신약의 엠마오 마을로 연관시키는 것이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견해이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순례객들이 찾아가고 있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24.9km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엠마우스 니코폴리스(Emmaus Nicopolis)라는 곳이다. 예루살렘 중앙 버스터미널에서 1번 고속도로를 타고 텔아비브 쪽으로 22분을 내려가면 유대 산악 지역을 지난 세펠라 구릉지대가 끝나고 지중해 해안평야가 시작되려는 곳에 이곳이 위치하고 있다. Emmaus는 히브리어 '하맛'에서 온 것인데 샘이나 온천이라는 뜻이다.

주전 3세기에 이 도시는 Nicopolis, 곧 헬어로 '승리의 도시'라고 불리게 된다. 이스라엘 남북을 교차하는 세펠라(구릉지대) 평지에 위치하며 고대로부터 물이 풍성한 지역으로서 좋은 식수를 공급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엠마오의 파란만장한 역사

엠마우스 니코폴리스는 마카비 시대, 로마 시대, 십자군 시대에 대단히 중요한 군사 요지로서 두루 알려진 곳이다. 이곳은 오늘날 무너진 비잔틴 시대와 십자군 시대의 교회 폐허와 폐허 위에 지어진 현대 교회가 있는 곳이다. 특히 아랍 사람들은 이곳을 엠마오와 비슷한 발음으로 오늘날 암와스(Amwas)라고 부른다. 또는 로마 시대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니코폴리스라고도 부른다. 때로는 이 두 명칭을 다 사용하여 엠마우스 니코폴리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폐허로 남아 있는 옛 도시 엠마오에는 지난 세기부터 수많은 고고학자들의 눈길이 쏠렸다. 20세기 초엽(1924-1930년)에는 예루살렘 성경 연구소의 성경고고학 연구팀이 본격적인 발굴 작업을 시작하였다.

로마 시대의 여러 건물들의 흔적과 2-3세기에 해당되는 성전의 흔적도 찾아냈다. 이 성전은 6세기 초에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의 대폭동으로 인해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 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527-565년 재위)에 의해 원래 성전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 재건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성전은 7세기경 회교 사원으로 변모되었다가 그 후 언제 누구에 의해서 그 사원이 파괴되었는지는 모른다. 십자군 시대에 들어와서 이 성전 자리에 다시 대성전이 건립되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1834년 마호멧 알리가 이끄는 터키군에 의해서 이 대성전은 산산조각이 되어 버렸고, 오늘날에는 그 흔적들만이 눈에 띈다.

이런 역사적인 흔적들은 발굴 작업을 통해 이미 알려져 역사학과 고고학에는 많은 보탬을 준 셈이다. 하지만 성전이 거듭 세워졌던 곳이 곧 부활하신 예수께서 두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나누셨던 클레오파스의 집터였다고 그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고 더군다나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엠마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여겨진다. 이곳은 성경의 기록과 달리 예루살렘에서 24.9km나 떨어진 곳이며, 그 당시에는 시골 마을이 아니라 도시 규모였기 때문이다.

아부고쉬와 엘 쿠베이베

누가가 누가복음서문(1:1-4)에 밝힌 바와 같이 정확한 기록에 신경을 쏟았다고 한다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대략 11km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되며, 도시 규모가 아니라 시골 풍경을 지닌 촌락이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엠마우스 니코폴리스보다는 오히려 아부고쉬나 엘 쿠베이베가 더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하다. 아부고쉬는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로 향하는 쪽으로 11.5km 떨어진 시골 마을이다. 원래 이곳은 히브리어식 발음으로는 '카리엘 엘 에나브'라고 칭해졌고, 아랍어식 발음으로는 '카리얏 여아림'이라고 칭해졌다. 그러나 19세기 초엽부터는 이곳을 지나가는 여행객들로부터 고품을 감탄해내곤 했던 산적 두목의 이름을 따서 아부고쉬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곳은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경계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약성경에 종종 언급되는 지역이다. 특히 언약의 계가 거의 20여 년 동안 안치되었던 곳으로서 한 때 성지로 간주되었던 지역이다.(사무엘상 6:21-7:2)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이스라엘선교회

10월에 이 성전을 축성하여 오늘날 교회로부터 공인받은 엠마오 기념 성전이 된 셈이다. 따라서 엠마오를 찾아오는 순례객들의 발길은 이곳으로 향해진다. 달리 말한다면, 누가복음이 말하는 엠마오는 오늘날 엘 쿠베이베로 정착되고 만 셈이다. 물론 이곳을 엠마오라고 부르는 데 많은 이의가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곳이 엠마오라고 불린 적이 한 번도 없었을 뿐더러, 클레오파스가 살았던 곳이라고 입증해 낼 수도 없기 때문이다.

부활의 주님은 마음으로 보는 것

믿고 따르던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인한 제자 두 사람(글로바와 그의 부인 마리아라고 전승은 이야기한다)이 실망하고 낙담하며 낙향하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지금 엠마오의 이름을 가진 마을은 많이 있지만 진짜 엠마오라는 장소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 하지만 후대의 사람들은 갖가지 것들에 엠마오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낙담하고 실망할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세상 사는 일이다. 하지만 그 세상 사는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것이 엠마오를 찾아야 할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성도들과 순례객들이 매년 이곳을 방문한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현재의 그 엠마오로 향하는 길목에 서서 2천년 전 예수님과 두 제자들의 대화를 묵상한다.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눈을 말씀으로 뜨게 해주실 때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보는 것이 영원함을 주님은 눅 24:31에서 말씀해 주셨다. (계속)

엠마오는 어디에 있는가?
예루살렘 서쪽으로 11.5km 떨어

채플과 엠버밍시설을 보유한 오렌지카운티 한인장 의사

리스장의사 장례적금

장례는 현실입니다. 이제 리스장의사 장례적금으로 부담을 덜어 내세요. 장례적금은 장례보험과 다르게 양도양수가 언제든지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불입하지 못하여도 강제해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달 납입 또는 디파짓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초 약속된 금액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장례적금은 아무 조건없이 누구든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매장패키지		화장패키지	
실제금액	실제불입액	실제금액	실제불입액
A \$2,270 SAVE (\$10,070)	\$7,800	A \$2,070 SAVE (\$8,070)	\$6,000
B \$2,820 SAVE (\$8,820)	\$6,000	B \$2,770 SAVE (\$7,570)	\$4,800
C \$2,170 SAVE (\$6,970)	\$4,800	C \$3,070 SAVE (\$6,670)	\$3,600
D \$1,655 SAVE (\$4,655)	\$3,000	D \$1,365 SAVE (\$2,565)	\$1,200

*최저 23%에서 최고 \$539까지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고인의 교회, 자택 등, 평소에 고인이 편안하게 생각하신 곳에서 장례식을 치루실 수 있도록 출장서비스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Since 1966

“이제 부담없이 마음놓고 있을 수 있게 되었네요”
리스장의사 장례적금을 통해서 \$3,000이나 절약하고 덕분에 아이들도 한결 마음에 부담이 덜 한 것 같아요. 고마워요, 리스장의사

왜 리스장의사 일까요?
유족과 같은 마음으로 리스장의사도 함께합니다
지금은 무한 경쟁시대, 최소 10% 이상 더 저렴한 비용을 약속드립니다
타 장의사의 채플비용을 절약하시면서 고인과 지인들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24시간 한국어 문의
(714) 469-1040
Fax (714) 333-4916 351 N Hewes St, Orange, CA 92869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동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도서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허운석 | 두란노 | 212쪽

아마존에서 22년간 사역하다 주님 품에 안긴 선교사의 후속작. 많은 울림을 준 전편에 이어, 소천 전 4년간의 일기와 말기암으로 고통받으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마지막 설교들을 교차 편집했다. 원망과 불평을 해도 모자랄 고통 중에서도 찬양하고, 그 신앙고백대로 살기만 죽기까지 바랐던 목소리가 고스란히 전해진다. 그 고백은 거칠지만 진솔하다.



크리스천을 위한 행복한 인생학교

차영아 외 | 생명의말씀사 | 264쪽

의미 있고 활력 있는 인생의 후반전을 기대하는 중년들을 위한 '하프타임' 제안서. '관계', '돈', '건강', '영성'이라는 주제로 4가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노하우를 전수한다. CTS 간관 프로그램인 <4인 4색> 명강의들 중 행복한 중년에 관한 내용들만 따로 모아 엮었다. 인생 전반전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등을 다방면에서 점검할 수 있다.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A. W. 토저 | 이홍복 역 | 규장 | 19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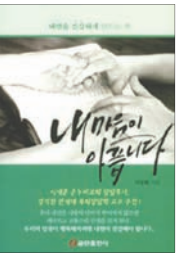
출판사의 '토저 마이티(Mighty) 시리즈' 26번째 책이다. '20세기의 선지자'였던 저자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담았다. '정말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때, 이 책을 펼쳐보라. 저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의 길에 '우연'은 없으며, 참된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분의 길을 나아갈 뿐이라고 말한다.



내 마음이 아픴니다

이정환 | 쿠팰출판사 | 207쪽

내면의 아픔을 겪은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전해 주며, 이를 통해 주변 이웃들을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품을 수 있도록 한다. 10여년 간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정신적·관계적·영적 고통을 겪는 이들을 만나 상담하고 돌본 저자의 풍부한 사례들을 담았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면의 상처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 위해 돕고자 한다.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REVIEW

'설교의 황태자' 스펀전의 설교를 들으라

"스펀전(Charles Haddon Spurgeon, 1834-1892)처럼 설교할 수 있다면..." 신학대학원 시절 '스펀전처럼 설교하고 싶다'며 스펀전의 설교전집을 샀던 필자의 동기는, 지금 스펀전처럼 설교하고 있을까?

필자는 "설교자는 스펀전처럼 설교해야 한다"고 단언하고 싶다. 스펀전처럼 설교하려면, 스펀전처럼 책을 많이 읽어야 할 것이다. 스펀전 시대에는 음향 기계가 없었다. 지금은 첨단 음향기계가 있기 때문에 스펀전보다 더 센스 어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왜 스펀전처럼 설교하지 못할까? 설교자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하고 자유로운 영혼

이라고 생각한다. 주 예수께 전적으로 헌신한 자유로움으로 설교한다면 스펀전의 설교가 부럽지 않을 것이다.

스펀전 설교에서 복음의 진수를 보아야 한다. 스펀전이 웨스트민스터 대가람 채플에서 육성으로 우렁차게 설교했던 상황을 상상하지 말자. 스펀전이 전하는 복음의 정수를 파악하고, 그 복음을 전한다면 스펀전처럼 설교한다고 할 수 있다.

번역자는 스펀전의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번역했다고 밝힌다. 구어체 문장이라 더 그렇다. 번역자인 채천석 목사의 번역 실력은 한국교회에 정평이 나 있다. 스펀전 번역은 학문 번역이라기보다 언어(소



찰스 해돈 스펀전의 성찬식 메시지
찰스 해돈 스펀전 | 채천석 역
CLC | 256쪽

리) 번역이다. 번역자는 이것을 고려해 독자가 스펀전의 설교를 들

수 있도록 의도했다는 것이다. 독서의 기쁨은 상상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번역자의 의도처럼 스펀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독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스펀전은 설교문을 작성하지 않았다. 정해진 주제를 체계적으로 전할 능력이 있었고, 그냥 전한 설교이지만 매우 체계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청교도 설교문을 볼 때, 독자들이 이렇게 설교문을 쓰려는 시도에 주의를 주고 싶다. 스펀전처럼 설교하려면 스펀전처럼 설교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신학을 확정하고 전달을 위해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스펀전처럼 하는 것이다.

본문 편집은 구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설문처럼 한 문장씩 줄바꿈으로 편집했다. 그래서 보는 순간 구어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찰스 해돈 스펀전의 성찬식 메시지>는 CLC '스펀전 시리즈' 총 8권 중 3번째 도서이다.

스펀전 설교는 다양한 전집들이 있다. 그러나 주제로 분류된 스펀전 설교는 실제 교회에서 설교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유익한 소재이다. 그리고 평신도들도 절기에 맞춰 스펀전의 설교를 읽으면서, 교회 강단 설교를 비교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고경태 목사
크리스천복뉴스 편집위원

ANC 세미나 공식 후원업체

GSI 블랙박스

"차량용 블랙박스 판매/무료 설치"

GSI에서 제공하는 최고의 블랙박스와 함께 안심 운전하세요



Aitz SMVB-6100
• 컴팩트 실속형 (주차감시 모드 시 전/후방 모션 감지 및 충격감지를 동시에 지원)
\$150 전.후방
\$190 전.후방



Aitz ROAD
• 3.5인치 터치스크린
• 포맷프리, 고온 차단 기능
• 128GB까지 인식
\$220 전.후방



Aitz ALPHA
• 4.0인치 FHD의 터치스크린
• 첨단 안전운전자원 시스템(ADAS)탑재
• 포맷프리
•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으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최적의 탑재위치
\$320 전.후방



Aitz RC-100
• 후진기어 시 자동으로 주차영상을 보여주는 콤보형
• 4.0인치 터치스크린
\$320 전.후방



eCell e-FOCUS
• 본체 분리 2채널 초소형 카메라
• 스마트폰 연동기능 (모바일 앱 통해 녹화영상, 실시간영상, 충격영상 확인가능)
• 포맷프리
• 앱 무료설치 및 업데이트
• 스트릿 파킹도 안심하세요
\$320 전.후방

* 그외 상업용 차량 및 모터 사이클용 블랙박스 판매

전시 및 Warehouse
GSI Systems, Inc.
860 E. La Habra Blvd, #220A
La Habra, CA 90631

GSI 블랙박스 판매/설치 연락처
LA & OC : T(408)966-8595, (714)349-8131
GSI SYSTEMS INC. - DASHBOARD CAMERA COMPANY
유통처 (Benz, BMW, Audi 및 특수차량은 추가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Coupon
기독일보 독자들만을 위한 혜택!
이 쿠폰을 지참하신 분들에게는
Micro SD Card 32GB 무료 증정

두 차례 세계대전 경험 후 기독교 현실주의 제시한 신학자

[송광택 목사의 인문 고전 읽기] 사랑과 정의라는 딜레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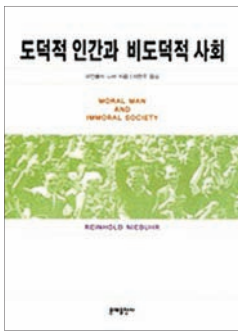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 1892-1971)는 개신교 신학자로, 기독교 신앙을 현실적인 현대 정치와 외교에 접목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1892년 6월 21일 미국 미주리주 라이트 시에서 독일 선교사인 구스타브 니버 목사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동생인 리처드 니버(Richard Niebuhr)와 함께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기로 했다. 일리노이주 엘름허스트 대학에 입학해 1910년에 졸업했다. 후에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에텐신 학교에서 공부하였고, 다시 예일대학교에서 1914년 신학학사 학위를 받고, 1915년 개신교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

독일 복음주의 선교 위원회는 그를 디트로이트로 보냈다. 도착 당시 신도의 수는 65명이었으나 1928년 그곳을 떠날 때에는 700명에 이르렀는데, 이런 증가는 당시 자동차 산업의 붐에 이끌린 새로운 인구의 유입에 힘입었다. 그는 산업화가 노동자들에게 끼친 비도덕화에 괴로워하여 헨리 포드를 비판했고, 설교를 통해 노조를 조직하도록 돕거나 공장 조립 라인이 가져오는 비인간적인 노동조건과 잘못된 근로관행에 관한 글을 썼다.

그는 1923년 유럽을 방문하여 지식인들과 신학자들을 만났다. 프랑스 점령 하에 있던 독일의 상황에 실망했고, 제1차 세계대전 때 취했던 평화주의 입장이 더욱 확고해졌다. 1928년 디트로이트를 떠나 뉴욕에 있는 유니온신학교 교수가 됐고, 1960년까지 생의 나머지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냈다.

이곳에서 그는 많은 세대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나치의 유대인 박해에 대해 고백교회를 세운 독일의 루터교회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도 그의 영향을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의 자유주의적 사상의 뿌리인 평화주의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 자유주의적 동료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전쟁을 옹호하게 됐다. 그는 결국 기독교 현실주의(Christian Realism)라고 불리는 운동을 일으켰다. 기독교 현실주의는 동시대 기독교인들의 이상주의보다 훨씬 강경한 정치적 태도를 보였다. 그의 정치, 사상적 활동은 두 번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몸소 체험하는 힘든 시기에 이루어졌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1932)〉는 라인홀드 니버가 쓴 최고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라인홀드 니버 | 이한우 역
문예출판사 | 294쪽

의 책 가운데 하나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이 책이 지금도 주목을 받는 이유는, 기독교 윤리 관점에서 정치 윤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책의 전제는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사이에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니버에 의하면, 개인의 도덕적 및 사회적 행동과 사회 집단의 행동 사이에는 명확한 구별이 있어야 한다. 고민은 예수에 의해 제시된 윤리적 표준과 현실 사회에서 경험되는 어둠의 권세 사이에서 겪어야 하는 갈등과 대립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집단이 크면 클수록 그 집단은 전체적 인간 집단에서 자신을 스스로 이기적으로 표현한다. 이런 집단은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이 되어 상상할 수 있는 어떠한 사회적 제재도 물리칠 수 있다. 집단이 크면 클수록 공동의 지성과 목적에 도달하기는 어려워진다.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으나 사회 집단은 한 개인처럼 도덕적일 수 없다는 것이 니버의 생각이다.

그에 의하면, 사회를 이루고 사는 인간은 그 집단 안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 한다.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사람들도, 집단이 되면 이기적으로 변모한다. 개인의 이해관계는 가장 이상적인 계획과 가장 보편적인 목적들까지도 파괴한다. 집단이 크면 클수록 공동의 지성과 목적에 도달하기는 어려워진다.

집단 간의 윤리는 개인 간의 윤리와 전혀 다르다.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윤리는 자국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다른 국가나 민족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한다. 자기 민족과의 관계가 성립되는 다른 국가와의 이해관계가 자신의 민족적 태도 내지는 정치적 관점과 상충할 때, 그 민족의 국가는 자연히 이기적이 된다.

그래서 니버는 국가공동체의 통일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폭력의

사용은 필연적이라고 말한다. 또한 강제적 수단을 장악하고 있는 집단은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그 목적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경제적 지배계급에 의한 국가의 이윤 추구, 노동자 계급의 착취 및 원료와 시장의 획득에 전력을 기울이는 국가의 모습은 이를 입증해 준다.

니버에 의하면, 사회의 요구와 개인 내면의 요구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사회를 중심에 놓고 보면 가장 도덕적인 행위는 정의이고, 개인적인 처지에서 보면 가장 도덕적인 행위는 이타성이다. 도덕의 문제가 개인적 차원에서 집단들의 관계로 옮겨가면 갈수록, 이기적 충동은 사회적 충동을 누르고 특세하게 된다. 따라서 아무리 강한 내면적 억제제도 이기적 충동을 완전히 억제할 수는 없다.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해지는 잘못을 바로잡으려면,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이기주의에 비해 자기 자신의 이기주의를 더욱 가혹하게 억제하는 훈련이 꼭 필요하다. 니버는 이런 훈련을 통해 선의지의 감정과 상호 이해하는 태도가 생겨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공동체도 조화되거나 통일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니버는 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원했다. 그는 사회주의자의 사상을 실험했고,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또한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구속을 벗어난' 메커니즘에서 잔인하고 냉혹한 결점도 보았다. 그는 양 극단 사이에서 조정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사랑이 동기가 되는 개인과 정의가 동기가 되는 사회는 하나의 딜레마다. 니버어도 이진 퇴양난에 대해 포괄적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 책에는 미래에 대해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분위기가 행간에 스며들어 있다. 그럼에도 이 책에는 놀라운 상상력과 통찰력이 있다. 그는 정치와 경제와 평등,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관하여 본질적인 통찰을 하고 있다.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 사상은 복음서의 고상한 윤리를 현실적으로 추구할 방법을 찾는다. 하지만 몸이 배 이해관계와 제도적 권력은 이 세상에 사랑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제한한다.

윤리적으로 곤경에 처한 인간에 관한 그의 인식은 놀랄 만큼 정확하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오늘의 현실을 위해서도 많은 것을 암시해주고 가르침을 준다. 송광택 목사 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회 대표

착하고 올바른 나는 왜 만날 당할까?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선긋기와 사수



지위놀이의 기술
툼 슈미트, 미하엘 에서
전대호 역 | 산수야 | 264쪽

빈 테이블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타인과의 상황을 예로 들면서, 어떻게 이 싸움을 이겨나갈 것인지를 지위놀이란 관점으로 돌아본다. 저자는 이러한 상황의 함겨투기를 내면과 외면으로 나누어, 높고 낮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를 크게 네 가지로 들어 분석한다.

저자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하여, 상대의 공격이나 무례를 내게 유리한 상황으로 뒤집어엎을 것을 조언한다. 사실 이런 테이블 싸움만이라면 감정이 좀 상하더라도 다른 자리를 찾아가면 그만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다양하게 겪는 상대방의 잘못이나 무례한 행동은 부지기수이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난다.

저자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할지를 지위놀이의 싸움에서 접근한다. 앞서 테이블 싸움이 내게 그저 불편함과 기분 상함의 문제라면, 직장은 나의 승진과 직장에서의 위치를 말하기에 이런 지위놀이는 훨씬 실제적이고 진중한 문제가 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이러한 지위놀이 관점은 인간관계를 대결구도로만 본다는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하지만-저자가 상호관계를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일차적으로는 일인칭 시점과 이해 중심이 더 강하게 우선한다-인간관계를 돌아보고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이 책은 유익하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곰곰이 살펴보면, 결국 이 지위싸움과 선긋기에 대한 여유 없는 마음에서 많은 다툼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본다. 주차문제, 끼어들기, 직장에서의 갈등 등 이 모든 것은 자기의 영역권과 소유를 절대 침해당하지 않으려는 모습에서 벌어지는 것일 게다. 물론 기본적으로 이 선긋기와 배분 등이 전혀 공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 지금보다 본질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말이다.

문양호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초등학생 시절 책상에 줄을 긋고 짝과 영역 싸움을 했던 것부터 극장에서 팔걸이가 누구의 것이냐는 무언의 투쟁, 엘리베이터나 지하철 문 앞에서의 줄서기, 빈자리 투쟁, 그리고 운전 중 끼어들기에 대한 분쟁까지 옹졸하고 치사해 보이는 세력다툼이 있곤 한다.

어쩌면 조금만 상대를 배려하면 다 해결될 것 같고, 그것이 기독교 인으로의 성숙한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그리 만만하지 않다. 바브라 유르겐센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 그렇지만'과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는 줄도 모르시겠지' 등에서 표현하듯, 내게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걸옷을 준다 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그 책의 주인공인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 항의한다. 왜 자신이 그렇게 양보하고 희생했어도 그들이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느냐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면 언제 그들이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냐고 되물으신다. 우리는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상대가 꼭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지위놀이의 기술〉의 저자는 이 옹졸한 싸움(?)을 '지위놀이'라고 표현한다. 이런 속에서 상처받거나 패배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처한 상황이 곧 지위싸움이며, 그리고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냐를 말한다. 그는 식당에서 내가 먼저 차지한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도운동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모터링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www.sellacare.com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세트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서울대학병원/암센터내 샀고려대 안암병원내 샀
입점

혈액 · 혈관 · 기운 · 면역

-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로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 데 있습니다. 알카리성 셀라케어

산성	중성	알카리성
3.5	6.0	7.0
8.5	9.0	9.5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초대교회 중심의 자녀교육 토브 세미나

내 아이를 과연 잘 키우고 있는 것일까?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특히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더욱 머리가 지끈합니다. 외국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부모이면 누구나 공감합니다.

교육전문가 권창규 박사와 함께 초대교회 중심의 자녀교육의 원리와 대안을 성경적으로 찾아가는 귀한 시간을 마련합니다. 성경적 자녀 교육에 목마름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을 **“초대교회 중심의 자녀교육 토브 세미나”**에 초청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결코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2017. 10. 13 (금) - 15 (주일)

(금) 8:00PM / 2천년동안 다음세대를 잃어버리지 않은 초대교회 비밀 (신 6:4-9, 스 7:10)

(토) 9:30AM - 5:30PM / 토브 교육세미나 & 질의 응답 (3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일) 5:00PM / 자식농사 주 안에서 된다 (창 18:18-19, 스 7:10, 마 28:18-20)



강사소개

권창규 박사

현재 코헨대학교 기독교교육학 교수이며 가정교육과 교회교육 전문기관인 토브미션 대표이다.

좋은가족교회(대구,용인) 담임목사, 유니스국제학교 교장, 미국 테필리아카데미 소장으로 섬기고 있다.

침신대 M.Div.와 코헨대학교 기독교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자식농사 주안에서 내맘대로 된다>

<3년 동안 4천 구절 암송의 비밀> 등이 있다.

등록비 : \$ 50.⁰⁰ (등록전화 : 714-634-8360)

장소 : UBM교회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주최 : The Uttering “HAGGADA (학가다)”

문의 : 성수진 전도사 (626-993-5353)